창간 1주년 특집 I

수행 어떻게 할 것인가

4 ····· 경전속에 나타난 수행법구
5 ····· 재가자 수행방법
6 7 ····· 46큰스님 생활 법문

'나' '너' 구분하는 마음 苦의 원인

禪 철학연구 거두 고형곤 박사에게 듣는다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샘마을 대우아파트 105동 701호. 나뭇잎은 살랑살랑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그야말로 전형적인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1995년 9월30일 토요일. 아직도 약주를 즐기신다는 취재기자의 말에 따라 양주를 한 병 사들고 초인종을 누른 것은 약속시간 5분전인 10시55분이었다. 이제 막 소세(梳洗)를 마친듯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는 노사(老師)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좌정(坐定)하였다.

90세 고령 불구 '천진난만'

내가 선생을 뵌 것은 학부에 재학중이던 70년대초 당시 선생은 〈禪의 존재론적 究明〉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의 주목을 집중시켰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벌써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90세의 고령이라고는 결코 믿겨지지 않는 정정한 체격하며 카랑카랑한 음성. 돋수 높은 안경 너머로 내비치는 형형한 안광(眼光)을 빼놓고는 모두가 천의무봉의 천진난만한 모습이다. 공부를 많이 하면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일까?

-선생님, 도인같다는 소리는 듣지 않으셨어요?

"왜, 들은 적도 있지. 내장산에 있을때 언젠가 KBS에서 몰려 와서는 나를 도사처럼 보기도 하더구먼. 또 한번은 바람에 남화경만 달랑 넣고 나를 도인이랍시고 찾아 온 사람도 있었는데, 타일러서 보낸 적도 있지. 하지만 나는 학문하는 사람이야. 기인이라면 다소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내장산에서는 언제 나오셨어요?

"3년 전이지. 11년 동안 있다가 루마치스 때문에 나왔어."

그 11년 동안 산속에서 선생은 혼자 무엇을 하였을까. 세간의 풍설처럼 참선에 몰입하고 있었을까. 그동안 혹 인간적인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야. 나는 외롭지도 않았고, 참선을 하지도 않았어. 추운 겨울에 구공탄을 때며 불씨를 안꺼뜨리려고 고생한 적도 있긴 하였지만, 여덟평 남짓한 서재에 절에서 전기 끌어다 쓰면서 가스렌지까지 설치해 놓고는 오로지 책을 읽으며 정리작업을 했지. 그 중에서도 훗설(Husserl)의 작품은 거의 다 섭렵하며 철저히 읽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애. 그 심리분석은 참으로 기막힌 면이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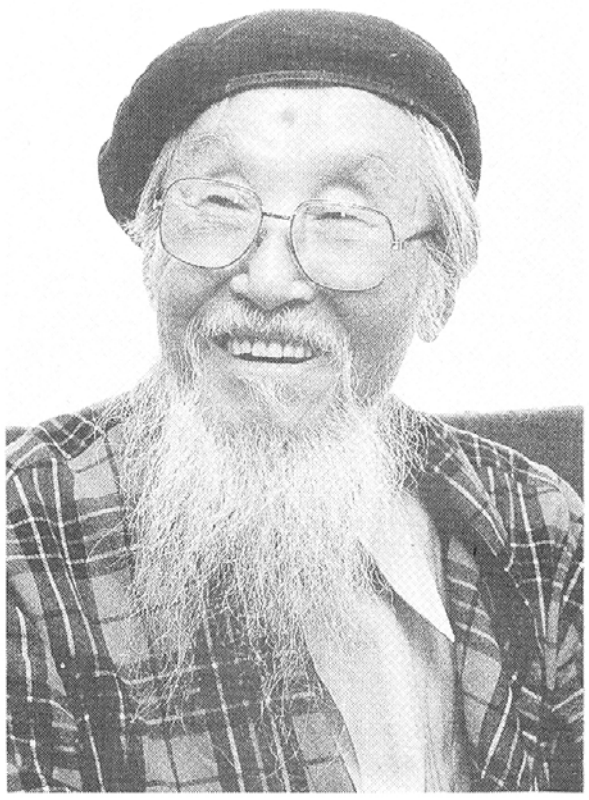
이렇게 해서 그동안 깨알같이 써놓은 각종 원고자료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손을 대지 못했던 원효에 대한 재해석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 세상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심경을 토로한다. 지금까지 학계에서 내놓은 원효의 연구라는 것은 포교 차원의 저작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의 단호한 평가이다.

선생의 논저는 거의 모두가 불교와 관계되어 있고 특히 선(禪)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선생은 언제부터 여기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일까.

악 력

- 69년 서울대 대학원 철학박사
- 47~59년 서울대 철학과 교수
- 54년 철학회 초대회장
- 59년 전북대 총장
- 63년 6대 국회의원

〈저서〉 '철학개론' '선의 존재존적 규명' '해동 조계종의 연원' '선의 세계' 수필 '하늘과 땅과 인간' 〈수상〉 학술원 저작상



러한데, 하물며 우리가 왜 우리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느냐는 자책감이 들었지. 세계화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니겠어.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 건성건성 세계를 뒤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세계무대에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나 역시 세계화 작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달과 손가락 관계 알아야

-선생님은 불교의 특성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불교는 철학이라 할만큼 심오한 인식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어. 서양보다도 훨씬 먼저 시작되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공부할 영역을 무궁무진하게 제공해 주고 있지. 불교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의 구속에서 탈피하여 대자유를 얻는 인식론적 해탈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선생님의 논문 서문에 '先以遮解信入하고 後以無思契同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우선 교(敎)를 통해서 들어간 뒤에 선으로 계합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았어. 그 말은 바로 보조국사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그 논문을 쓴 동기도 바로 그것이지. 달을 보기 이전에는 가리켜 주는 손가락이 있어야 하고, 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타고 갈 배가 있어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이지. 나도 불교의 진리를 하이데거나 훗설의 정밀한 분석방법을 통해 설명해 보려고 그 논문을 썼던 것인데, 내가 충분히 더 알았으면 더 잘 풀어서 썼을거야. 그런데 나 자신도 겁을 내며 무서워 한 나머지 잘 풀지를 못했어. 그런 점에서 독자에게 미안한데, 후학에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거야."

-그런데 보조국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사상을 폄하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계종의 법통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사선의 시각에서 볼 때 보조국사의 교설을 순금이 아닌 합금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나는 한국불교의 본색은 선교일치를 제창한 보조국사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 태고가 연경(燕京)에 가서 석옥청공의 임제종 법맥을 받아 왔다고 하지만, '吾道가 東遷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 역시 보조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거야. 그리고 서산 역시 태고의 임제종 법맥을 이어 받긴 하였지만 〈선가귀감〉 같은 책을 보면 모두가 선교일치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조계종의 연원에 관해서 포광(包光:김영수씨)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출판될 책에서 상세히 볼 수 있을거야.

그리고 이른바 '돈오돈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는데, 나에게는 별로 신통하게 여겨지지를 않아. 수도라고 하는 수의 뜻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무한한 고행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깨치고 난 뒤에 다시 입세간(入世間)하는 그 과정의 수(修)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야. 유마가 왜 병을 앓았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기 때문이야. 자기 혼자 돈오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모두를 이루어야만 정말 깨쳤다고 할 수 있지. 만약 돈오돈수식이라면 부처님이 왜 구태여 녹야원에서 강의를 했을까. 부처속에 중생이 들어 있고 중생이 곧 자기의 몸이기 때문이지. 말하자면 깨치기 전만이 아니라 그 뒤의 수도가 진짜 수도라고 해야 할거야."

대 담



이 상 현
〈민족문화추진위 전문위원〉

-우리 중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깨우쳐 나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요목(要目)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요.

관념 허깨비 먼저 버려야

"능소(能所: 주객이라는 뜻의 불가 전문 용어임)의 대립을 불식하도록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강물처럼 흐르는 인간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적 표상일 뿐이야.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동일성 즉 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재에 대한 신빙성을 가차없이 버리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급기야는 의식의 흐름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해탈이지. 그러고나면 비로소 「山是祇是山 水是祇是水」의 실상의 경지가 전개될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분이 치밀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고 할 때, 정작 자기가 죽여야 할 대상은 자신의 분심(忿心)이지, 상대방은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분심이라는 의식의 관념은 칼로 찌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지. 그것이 바로 능소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말하자면 세속적인 인간들은 의식 작용을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의식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실재 한다고 믿은 나머지, 그것을 객체화 하고는 이를 획득하여 자기의 소유로 하려고 안달하는 데에서 온갖 고뇌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었다.

-현금 한국 불교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유감스럽게도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좋은 자리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이지 종교가 아니야. 주제넘게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 사찰 경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복전불교가 우리 불교를 망치고 있어. 각 사찰마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널려 있는데, 고냉지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무슨 방법이든 강구해서 승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야 돼. 공양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게 되어야만 진실한 공부를 할 수 있거든.

"좋은 자리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이지 종교가 아니야 한국불교가 거듭나려면 福田불교 지양해야"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국립공원 관람료에 대한 문제야. 나도 내장산에 있어 봤지만 유명한 사찰의 경우 한 해에 몇 억 혹은 수십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 주지를 하려고 싸우고들 있지. 그러니 그 수입을 사찰에서 차지하지 말고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거야."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 반. 대답한지 두 시간이 훨씬 넘도록 지칠줄 모르고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선생의 열정에 새삼 경외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더욱 오래 사시며 강건하시기를 빌면서.

"소유욕에서 고뇌 발생…깨침뒤의 닦음 더 중요"

자연과학적 사유 '막다른 골목'…전세계 禪관심

"연전(延專)에 있던 40세 무렵부터이지. 일본 학자들이 독일에 가서 하이데거(Heidegger)와 대담한 논문을 보고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어. 물론 하이데거 이전에도 니체나 키에르케고오르·쇼펜하우어 등이 자연과학적 방식의 서양의 사유가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을 느끼고는 그를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려고 노력했었는데, 하이데거에 이르러서는 동양적 사유, 그중에서도 특히 선(禪)에 대해 관심이 지대하였고, 그래서 강의를 끝낼무렵에 가서는 '척수성성(隻手成聲:한 손바닥만으로 소리를 낸다는 뜻의 일종의 선기(禪機)'의 몸짓을 보여주기까지 하였다는 거야. 하이데거도 그 인식론적 체계를 통해서 들어간 뒤에 선으로 계합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았어. 그 말은 바로 보조국사께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그 논문을 쓴 동기도 바로 그것이지. 달을 보기 이전에는 가리켜 주는 손가락이 있어야 하고, 강을 건너기 이전에는 타고 갈 배가 있어야 하는 이치와 마찬가지이지. 나도 불교의 진리를 하이데거나 훗설의 정밀한 분석방법을 통해 설명해 보려고 그 논문을 썼던 것인데, 내가 충분히 더 알았으면 더 잘 풀어서 썼을거야. 그런데 나 자신도 겁을 내며 무서워 한 나머지 잘 풀지를 못했어. 그런 점에서 독자에게 미안한데, 후학에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거야."

-그런데 보조국사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보조국사의 돈오점수 사상을 폄하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조계종의 법통에 대한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조사선의 시각에서 볼 때 보조국사의 교설을 순금이 아닌 합금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나는 한국불교의 본색은 선교일치를 제창한 보조국사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 태고가 연경(燕京)에 가서 석옥청공의 임제종 법맥을 받아 왔다고 하지만, '吾道가 東遷하는구나'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 역시 보조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봐야 할 거야. 그리고 서산 역시 태고의 임제종 법맥을 이어 받긴 하였지만 〈선가귀감〉 같은 책을 보면 모두가 선교일치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 조계종의 연원에 관해서 포광(包光:김영수씨)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곧 출판될 책에서 상세히 볼 수 있을거야.

그리고 이른바 '돈오돈수'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는데, 나에게는 별로 신통하게 여겨지지를 않아. 수도라고 하는 수의 뜻에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무한한 고행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깨치고 난 뒤에 다시 입세간(入世間)하는 그 과정의 수(修)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야. 유마가 왜 병을 앓았나? 부처와 중생이 따로 없기 때문이야. 자기 혼자 돈오 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지. 상구보리와 하화중생 모두를 이루어야만 정말 깨쳤다고 할 수 있지. 만약 돈오돈수식이라면 부처님이 왜 구태여 녹야원에서 강의를 했을까. 부처속에 중생이 들어 있고 중생이 곧 자기의 몸이기 때문이지. 말하자면 깨치기 전만이 아니라 그 뒤의 수도가 진짜 수도라고 해야 할거야."

-우리 중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깨우쳐 나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요목(要目) 하나만 제시해 주십시요.

관념 허깨비 먼저 버려야

"능소(能所: 주객이라는 뜻의 불가 전문 용어임)의 대립을 불식하도록 노력해야지. 모든 것을 강물처럼 흐르는 인간의 의식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적 표상일 뿐이야.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동일성 즉 자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재에 대한 신빙성을 가차없이 버리도록 노력해야 돼. 그리고 급기야는 의식의 흐름까지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해탈이지. 그러고나면 비로소 「山是祇是山 水是祇是水」의 실상의 경지가 전개될거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분이 치밀어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고 할 때, 정작 자기가 죽여야 할 대상은 자신의 분심(忿心)이지, 상대방은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만들어낸 분심이라는 의식의 관념은 칼로 찌를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거지. 그것이 바로 능소의 대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말하자면 세속적인 인간들은 의식 작용을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의식되어진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실재 한다고 믿은 나머지, 그것을 객체화 하고는 이를 획득하여 자기의 소유로 하려고 안달하는 데에서 온갖 고뇌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었다.

-현금 한국 불교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유감스럽게도 종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좋은 자리 얻으려고 싸우는 것을 보면 정치이지 종교가 아니야. 주제넘게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우선 사찰 경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거야. 복전불교가 우리 불교를 망치고 있어. 각 사찰마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널려 있는데, 고냉지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무슨 방법이든 강구해서 승려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 해야 돼. 공양을 안 받아도 살 수 있게 되어야만 진실한 공부를 할 수 있거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국립공원 관람료에 대한 문제야. 나도 내장산에 있어 봤지만 유명한 사찰의 경우 한 해에 몇 억 혹은 수십 억씩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이권을 둘러싸고 서로 주지를 하려고 싸우고들 있지. 그러니 그 수입을 사찰에서 차지하지 말고 철저히 공적으로 관리 경영하는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할거야."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 반. 대답한지 두 시간이 훨씬 넘도록 지칠줄 모르고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선생의 열정에 새삼 경외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아쉬운 마음으로 문을 나섰다. 더욱 오래 사시며 강건하시기를 빌면서.

창간1주년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 동참 공고

◆ 발기 취지문 ◆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가 불자들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한편, 목숨 바쳐 정법을 호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 왔습니다.

한국불교는 16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면, 한국불교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며 민족사에 찬연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비록 조선왕조 500년과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시련을 거치면서 침체기를 겪기도 하였으나, 불교가 민족 최대의 종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우리 불자들의 외호의 힘이 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빛나는 정신 문화적 지주 역할을 하며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 온 한국불교와 우리 불자들은 이 시대에 보다 냉엄히 자신과 사회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승의 훌륭한 방편으로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제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사부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시작된 개혁불사는 이제 한국불교의 모습을 하나씩 정비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의 큰 수레는 두 바퀴가 가지런해야 올바로 굴러갈 수 있듯이 재가불자의 결집과 역할 없이 훌륭한 신행 공동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변화를 시작한 우리 종단의 건강한 주체로서의 재가불자의 결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행과 전법을 행하는 승단과 더불어 불법을 신행하고 외호하는 재가불자의 결집된 원력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한국불교의 앞날은 매우 밝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는 모든 재가불자들이여! 이제 조계종단의 종지를 받들고 종단과 더불어 화합과 신행의 공동체를 건설하여 한국사회와 인류세계의 병폐를 정법으로 치유해 나갑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국불교의 발전은 물론 한국사회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할 것을 부촉하고 계십니다. 한국불교의 천만 재가불자가 결집된 원력을 가진 대승보살로 거듭 난다면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중앙신도회' 여기에 자신과 인류를 구제할 새로운 삶의 희망과 화합공동체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중앙신도회 발기에 동참하여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야 합니다.

2539년 10월

1 발기인 동참 자격

개혁종단과 함께 한국불교 중흥을 이룩할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발기인을 모십니다. 새로운 전국 신도대표기구 결성 취지에 찬동하고 신심과 애종심이 있으며 신행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구 본말사의 전현직 신도회장 및 임원과 전국 규모의 직능 신행단체의 본부 임원 및 지부 지회장, 연합 신행단체의 중앙본부 임원 및 산하단체 임원과 지역 및 개별 신행단체의 임원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발기 취지에 동감하는 개별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 대회 및 준비위원회 결성식

일 시 : 불기 2539년 11월 11일(토) 오후 3시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유의사항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기인 승낙서는 신문에 게재된 양식을 A4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중앙신도회 창립 발기인 동참 보시금

1인당 ₩ 100,000원 이상

5 발기인 승락서 및 동참 보시금 접수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110-170
전화 : 720-7060~4 / 전송 : 720-7065 / 담당 : 류창무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01-0533-326
예금주 :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
※ 동참보시금 발기인 대회 당일 접수 가능

승 낙 서

성 명 :
법 명 :
소속 사찰단체명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자택 ㊞
직장 ㊞

상기 본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발기인을 승낙합니다.

불기 2539년(96)년 월 일

_____(인)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준비 실무위원회 위원장 신 법 타